



연중 제28주일

제 1 독서 열왕기 하권 5, 14~17

화 답 송 시편 98(97), 1, 2~3, 7, 8, 3, 4~4 (© 2 참조)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후렴) 주님은 당신 구원 - 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1.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2.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

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 2 독서 티모테오 2서 2, 8~13

복음 환호송 1테살 5, 18

◎ 알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복 음 루카 17, 11~19

영성체송 시편 34(33), 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감사하는 마음의 필요성

나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최소의 기본권조차 박탈당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이 끔찍한 불행인 것은 하늘이 주신 벌이라고 말하면서 환자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소외시키고, 또 그 전염성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소외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병은 부정(不淨)입니다. 즉,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죄인, 곧 더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13,44~46) 따라서 율법은 부정한 이들과 신체적 접촉을 금합니다. 접촉을 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 곧 죄인으로 취급당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몸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분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큰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나?”

나병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 물음은 우리 모두를 향한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나병 환자처럼 더럽고 흉한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성사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얼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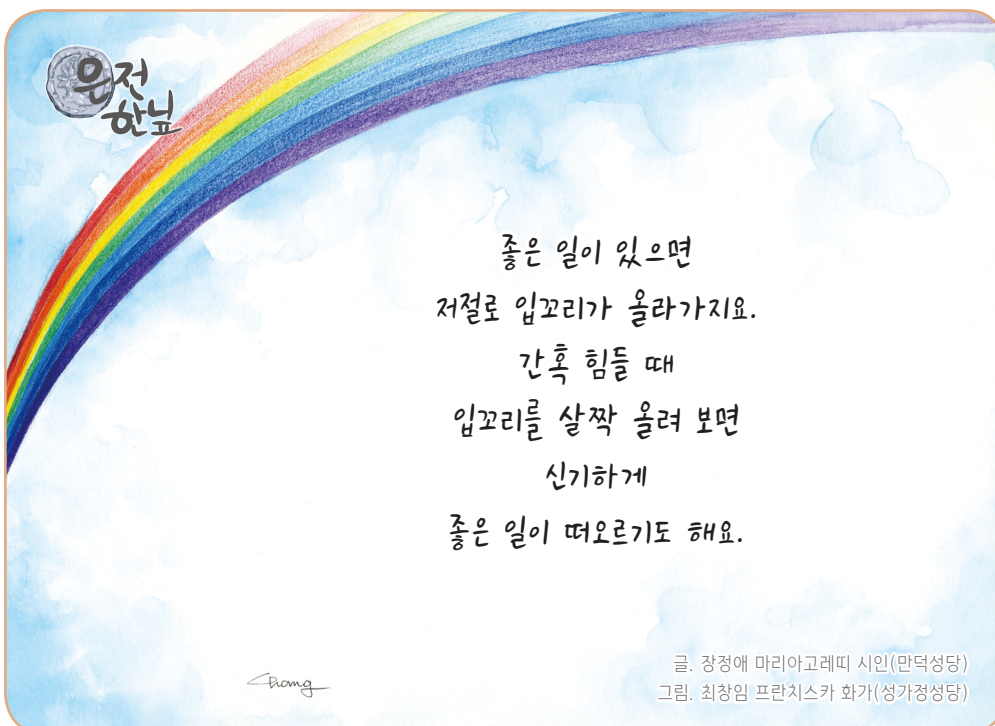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아홉 명 중의 하나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이방인 나병 환자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루카 17,19)

김 평 경
타데오 신부
장산성당 주임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 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0.14(월)~15(화)
김평경 신부(장산성당 주임)
10.16(수)~19(토)
박힘찬 신부(오순절평화의마음 부원장)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김현지 리나

10.15(화) 함께하는 여정
2019 체나콜로 전국대피정 참가자들
10.17(목) 퀴즈콩트, 성경에서 온 그대
출연 : 정철용 신부(우동성당 부주임), 임영천 헬레나
* 스페셜 : 10.19(토) 12:00~13:00

옆에서 보고 듣기만 했는데도 직접 행동했을 때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뇌 세포군을 가리켜 미러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장소에 가면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거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거만해지고, 겸손한 사람 옆에 있으면 은연중에 겸손해지기 쉬운 것은 미러 뉴런의 영향 때문입니다. 또 미러 뉴런은 의사소통과 감정교류를 통해 적절히 공감하는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차 안에서 한 꼬마가 시끄럽게 떠들자 승객들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짢은 기색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하자 그 사람이 차례로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게 되었고 결국 승객들은 아이가 계속 떠들고 놀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 아이는 떠

칠 전 세상을 떠난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다가 달리는 기차를 타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떠들고 있습니다.” 사정을 알고서 사람들은 공감을 하게 되었고 어떤 이는 꼬마와 같이 놀아주려고도 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에페 4.29)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에 들어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부엌 창이 더러운데 이웃집의 빨래가 더럽다고 말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각자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감은 ‘우리’가 중심입니다. 공감의 개념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나누어봅시다. 그리고 공감의 상대를 예수님으로 대체하여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 안에 계

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불행에 빠진 사람,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안에 계시는 그분과 공감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같은 학대를 받고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히브 13.3) 형제 안의 부족한 점들을 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감해 나간다면 서로 간에 일치가 이루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 윤 경 일 아오스당

좌동성당 / 의료인 ykikhk@hanmail.net



수입 곡물 NO, 우리 곡물을 먹어요.

하느님께서서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 땅에 나게 하십니다. 수입 곡물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가 넘쳐나지만 그것은 유행처럼 반복하는 소비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에, 우리 땅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받아 영위하며 사는 것이 농부이신 하느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며,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길일 것 같습니다. 철따라 풍요로운 음식을 먹여주시는 그분의 세심한 손길에 머물러 봅시다.

우리 삶과 식생활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 더불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절기와 세시풍속, 세시음식도 그 시간 안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신토불이(身土不二), 지산지소(地產地消)라는 말도 그러한 땅에 대한 성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먼 곳의 곡물과 농민이 아니라, 우리와 삶을 공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심고 키운 먹을거리가 더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계절의 깊이를 더해가는 이 가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성장해 온 우리 곡물로 밥상을 가까이 두시면 어떨까요?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 친구

2019년 10월 13일

친구

요한아, 궁금한 게 있는데..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개신교는 술담배를 하면 안된다 하고, 천주교는 술담배 해도 된다 하고, 왜 그런 거냐?

술 잘 먹는 너한테는 그게 중요하겠다.

방향은 같은데, 방법이 다르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신교는 금욕을, 천주교는 친교를 강조하는 거지.

친구

음, 더 해봐.

술담배, 특히 술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려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다는 게 개신교 생각인 거고,

우리 천주교는 술담배 모두 개인 취향이라 그걸 해라 마라 규정하는 것 보다 얼마나 이웃을 챙기면서 함께 살려고 했는지 그걸 더 중시하거든.

예수님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먹보요, 술꾼'이라고 욕을 들으셨는데, 아마 술(담배^^) 한잔하시면서 이웃과 애환을 같이 하셔서 그렇지 않을까?

친구

오~천주교가 확 당기네^^

그렇다고 인사불성으로 마시거나, 남에게 피해주라 소리는 아니고, 강조점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리고 너는 술 좀 줄이기 전에는 성당에 안 데려갈 줄 알아라.

1974년 7월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가 로마에서 귀국하시다가 김포공항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정보부에 연행되었음을 확인했다. 한국교회에 비상이 걸렸다. 주교회의가 열리고 소위 시국미사가 명동성당에서 열렸다. 9월부터는 전국의 많은 사제들이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교구마다 미사를 올리고 부산에서도 중앙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주교도 참석하셨고, 성명서는 당시 가장 선임자인 김 알렉시오 신부가 또박또박 선언하셨다.

이렇게 시작된 시국미사는 매월 한 차례 전포, 서면, 양정, 온천성당 등을 돌며 거행되었다. 그때는 교구 구분 없이 전국에서 사제들이 함께 모여 미사를 드렸다. 당시의 감정을 지금 살릴 수는 없지만 유신시절의 시민 생활은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었다. 국민은 정부의 겁박에 놀라서 멍한 상태였다 할까? 아무튼 무소불위의 정보부 행패에 짓눌려야 했었다. 75년 정월 전포성당 외벽에 "지주교를 석방하라."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새벽에 그것을 제거하려 경찰관이 지붕에 올라갔으나 작업이 지체되었는데 본당신부는 강도 잠입으로 신고를 하니 경찰이 경찰을 잡으러 오게 되었다. 국제신문 기자가 그 현수막 사진을 찍어 기사화했다. 당시 그런 기사는 어렵도 없었지만 의식 있는 문화부장이 외부에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며 미리 인쇄되는 문화면에 실어놓고 본인은 잠적을 해서 기사화될 수 있었다. 그것이

최초 유신항거 표시였다. 신문사와 전포성당이 호되게 감시를 받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75년 초에 부산에 "인권선교협의회"라는 신부, 목사, 평신도가 합동으로 엮은 작은 모임이 출범되었다. 서울 등 타지에는 이미 반유신 모임체가 많이들 있었으나 유독 영남만은 조용하던 시절이었다. 그 협의회의 주선으로 성당만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도 시국 기도회가 열리고 전포성당 신부가 구포로 삼랑진으로 쫓겨가는 등 지역사회도 움직임이 느끼게 되었다. 삼랑진 신부는 월·화요일 미사를 빌미로 부산대 옆 성심수녀원에 드나들며 변호사, 젊은이 등과 대화가 계속되는 등 부산에서도 표면상 큰 항거는 보이지 않았지만 민주주의의 의지는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외지에서 발표된 유인물들이 부산에도 신속히 배포되었고 대학에서는 『폐다고지』와 『해방신학』 책이 암암리에 탐독되었다. 그러니까 행동까지 이어지지 못했으나 많은 이들의 가슴속엔 민주화의 열망이 농익어 갔다.

돌이켜보면 그때 희생당한, 예컨대 기도회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후 쫓겨난 교사나 밤새워 운동준비하는 이들을 도와주던 수도자들에게 감사하고 축하하고 싶다.

여기서 부산대의 소위 '10·16(부마항쟁)'이 출발한다. 그것은 곧 10·26으로 연결된다. 부마항쟁 40주년, 참으로 감격스럽고 값진 기념일이다.

■ 송기인 베드로 신부

원로사제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제18차 전국 울뜨레야 - 데 콜로레스!(de colores)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울뜨레야는 묵주기도를 시작으로 교구 기 입장, 묵주기도 500만단 봉헌, 성직자 담화(박상대 신부), 기념미사, 축하공연 및 영상 상영, 뛰어라, 성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기념미사를 주례한 교구장 손삼석 주교는 미사 강론 중에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고,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려면 꾸르실리스마 여러분들이 진정한 소금이 되어, 자신을 희생하고 교회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18차 전국 울뜨레야’가 우리 교구 꾸르실리오 주관으로 지난 10월 3일(목) 부산사직실내체육관에서 꾸르실리스마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레지오 마리에 운동 활발..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복음화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성모님의 군대인 ‘레지오 마리에’ 활동이 최근 성인, 청년, 소년 프레스비디움 단원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천국의 밤 행사



9월 21일(토) 천곡성당 / 내용: 쉬는 교우 회동자, 예비신자, 짝교우를 위한 축하의 자리
주임: 손영배 신부, 회장: 성재근 다니엘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예신 월 모임

· 10.13(일) 13:30 · 신학대학
문의: 629-8760(성소국) * 예신수첩 지참

신학생 부모 피정

· 10.27(일) 10:00 · 교구청 지하 1층 믿음실
준비물: 미사도구, 묵주, 필기도구 / 회비: 1만원
입금: 부산 041-01-027178-1 천주교부산교구
신청: 10.21(월)까지 팩스(629-8764)
문의: 629-8760(성소국)

10월 교구 혼인강좌 안내

부산지역: 10.27(일) 15:00~18:50
인터넷접수 / 선착순 50커플 / 당일접수 불가
예비부부와 기혼부부 모두 수강 가능
문의: 441-3501, www.catholicbusan.or.kr

본 당

중앙성당 잘츠부르크대성당 오르가니스트

헤리베르트 메저거 초청연주회

· 10.14(월) 19:30 · 중앙성당 대성전
문의: 246-4284

남산성당 오르간 봉헌 기념 연주회

· 10.20(일) 13:00 · 남산성당 대성전
문의: 583-6314 / 주최: 남산성당 사목협의회

활천성당 제3회 은혜의 밤

· 10.22(화) 19:00 · 활천성당
강사: 유연창 신부 / 문의: (055)334-5418

기관·제 단체·위원회

교구평협 제2차 부산교구 평신도아카데미

· 10.19(토) 14:00~18:00 · 주교좌 남천성당
주제: 함께 걸어가는 교회 - 공동합의성
대상: 교구민 누구나(본당상임위원 & 제단체간
부 필참) * 대중교통 이용 / 문의: 622-5588

지속적인성체조배회 회장단 회의

· 10.18(금) 11:00 / 대상: 회장 및 지도조장
· 가야성당 / 문의: 466-2290

푸르실로 참가 신청 접수 마감 안내

제420차(은총) 10.13(일) / 제421차(형제) 10.19(토)
제422차(자매) 10.26(토) / 제423차(형제) 11.9(토)
제424차(자매) 11.21(목)
문의: (055)388-5734, (팩스)5733, 본당 간사

Arca 청년서서모임 월례제미사

울산: 10.14(월) 19:30 울산병영순교성지성당
주례: 이주홍 신부
문의: 469-0761, cafe.daum.net/psbiblefamily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10.14(월) 19:30 · 가톨릭센터 소극장
주제: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
강사: 오성배 교수
문의: 465-9508(무료강의와 미사)

오륜대순교자성지 후원회 미사

· 10.17(목)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특강: 성 황석두 루카
문의: 515-0030

부산교회사연구소 순교자 현양 미사

· 10.19(토) 11:00 ·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순교자현양위원회사제단 / 문의: 462-1784

오순절평화의마음 후원회 미사

부산: 10.14(월) 11:00 남천성당
문의: 782-0765

빈민사목 후원미사

· 10.14(월) 10:30 · 문현성당
주례: 윤희동 신부 / 문의: 467-1045

빈민사목 반송 빛둘레 나눔가게

깨끗한 의류, 운동화, 가방(새 그릇 택배 및 직박가방)
문의: 542-0242, 467-1045, 010-2886-6467

부산 미바회 후원회 미사

· 10.18(금) 10:00 / 세계오지선교회차량지원
· 문현성당 / 문의: 010-9312-4228(회장)

울산성서모임 루카 복음 특강

· 10.28(월)~29(화) · 복산성당
강사: 최스피리따 수녀 / 회비: 4만원
문의: 010-2082-0627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홈페이지: 부산교구/성당홈/기관/영성의 집)

- 젊은이 기도회
· 10.14(월) 19:30 전포성당
· 10.16(수) 20:00 울산대리구청 별관
- 성모님과 함께하는 100만 묵주기도회
· 10.14(월) 11:00~16:00 / 중식제공, 안수
- 수요치유기도회
· 10.16(수) 12:50~16:00
- 철야기도회
· 10.18(금) 23:00~19(토) 04:00
강사: 김선태 신부
- 461차 교구묵상회(일반)
· 10.25(금) 19:30~27(일) 17:30
회비: 15만원(교재비 5천원 별도)
18:3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지하도 입구

가톨릭센터 제25기 인문교전대학 개강

개강: 10.15(화) 19:00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
접수비: 무료 / 매주 화, 수 강의(8주간)
화: 성찰과 신앙의 길 - 윤산의 『논어』 읽기(김수청 교수) / 수: 운명앞에선 인간의 노래 - 그리스 비극 읽기(김재경 교수)
접수: 10.1(화)~15(화) 전화 접수(강의 첫 주 현장접수) / 문의: 510-0554(인문학연구소)

가톨릭센터 문화공연 아름다운세상 77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저녁기도〉
· 10.28(월) 19:30 · 이기대성당 성전 / 무료입장
출연: 가톨릭센터 문화선교 케노시스 합창단, 중구 아라소년소녀합창단, 바흐솔리스트서울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사무실 6층 (16평, 20평, 36평), 8층(14평)
문의: 462-1870, www.bcccenter.or.kr

음악교육원 신윤경 두 번째 오르간 이야기

· 10.13(일) 16:00 · 망미성당
문의: 517-8241~2(음악교육원)

라우다떼윈드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

· 10.21(월) 19:30 · 안락성당
지도: 신요안 신부 / 지휘: 이수영
문의: 010-2914-8305(단장) * 초대

울산가톨릭합창단 2019 제18회 정기연주회

· 11.1(금) 19:30 · 복산성당
문의: 010-4872-1554(서명)

Senda <희망, 가톨릭 청년 - 불금에 센다

에서 놀자!>: 성령의 은총으로, 참제자가 되다!
· 10.18(금) 19:30 · 서면성당 센다
문의: 809-0642(서면성당)

선중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17. 10. 14. 하(안토니오) 몬시놀
2017. 10. 17. 백응복(스테파노) 신부님
1978. 10. 19. 김경우(알렉시오) 신부님



**2019년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다락방) 전국대피정**

10.21(월) 09:00~17:00 주교좌 남천성당

미사: 손삼석 주교

강사: 로랑 라로케 신부(국제마리아사제운동대표)

준비물: 미사도구, 묵주, 합본, 간단한 도시락 지참

문 의 : 010-8879-2376

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항인환(가롤로)·김경자(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례틀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범무법인 올강
민사, 형사, 가사, 상속,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각종법률상담
형사·손해배상·가사·부동산전문
대표번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
717-2570, 010-7455-1031

물 세는 곳을 정확히 찾아, 보수
삼일누수탐지공사
수도배관, 보일러배관 등 각종 누수
인터넷 검색어 : 삼일누수
202-3011
이 국 영 (베드로)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각종차량 자동차의 모든 것
매매, 위탁, 수출, 폐차, 말소
OS자동차매매상사
상담. 010-3599-6420
관허 제20호 현 중 삼(요셉)

암 통합치료
해월씨에스의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원장. 한 창 순(마리아)
710-7090
해운대구 달맞이길 227

SIS퍼니처
부엌가구, 발탁이장, 드레스룸
현관장, 맞춤가구 전문
대표. 하 영 해(미카엘)
010-3864-2620, 751-0612
상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 제 주 단
주단, 포복,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테레사)
632-0696
010-9331-6633
진시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문 안쪽 화장실 옆

가톨릭여행사
11/4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12일 635만원
11/5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15만원
1/6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원
1/30 이탈리아 일주 13일 430만원
010-5235-3533, (02)319-2533

전례꽃이연구회 제12회 전시회
· 10.25(금) 15:00 오프닝~27(일) · 가톨릭센터
문의 : 010-4554-1173, 010-2556-6380

평신도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신청 : 부산가톨릭신학원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atholic-sinhak)
문의 : 462-0334

부산여성그레고리오성가단 단원 모집
연습 : 매주 월요일 19:00 음악교육원
성음악 월미사 : 매월 첫째주 토요일 11:00 오륜대
순교자성지성당 / 단장 : 김희숙, 지휘 : 최유정
지도신부 : 염철호 신부
문의 : 010-2830-7379, 010-3923-1692

애덕의집(그룹홈) 입소자 모집
대상 : 여성시각장애인(중증), 기초생활수급자
문의 : 464-3909(시각장애인선교회),
010-2249-5001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10.18(금) 10:00 · 사직대건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비아희 은퇴 사제를 위한 미사
· 10.14(월) 11:00 · 교구청 2층 성당
문의 : 010-4557-7348

사랑의성모수녀회 후원가족미사
· 10.14(월) 14:00 · 수녀원
문의 : 756-3266, 010-5648-3266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후원회 미사
· 10.17(목) 14:00 · 푸른군대 지하 경당
문의 : 634-4820, 636-4819

밀양가르멜수녀원 후원회 미사
· 10.21(월) 11:00 · 남천성당 소성당
주례 : 이흥기 몬시뇰 / 문의 : (055)353-6597

예수회 무료월례특강 및 미사
· 10.18(금) 14:00~17:00 · 성분도 은혜의 집
주제 :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시는 하느님
강사 : 김상용 신부 / 문의 : 010-9344-3843

부산성모병원

2019년 뇌졸중의 날 건강강좌

일시 / 2019년 10월 15일(화) 14:00

장소 / 부산성모병원 4층 베네딕도홀

* 소정의 기념품 증정도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 : 933-7957(신경과 외래)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부산성모병원이 함께합니다.

새에루살렘 향심기도 피정
· 10.18(금) 16:00~20(일) 16:00 · 새 에루살렘
강사 : 김경순 수녀, 양영수 신부
참여비 : 9만원(숙식 포함) / 신청 : 10.15(화)까지
문의 : 010-5488-1239, 010-3834-4997

분도명상의집 렉시오디바나(성독) 월기도모임
· 10.26(토) 10:00~16:30 · 분도 명상의 집
참가비 : 1만 5천원 / 준비물 : 성경, 미사
문의 : 010-3271-0766(권 벨라베타)

전교가르멜수녀회 젊은이 힐링 피정
· 10.27(일) 10:00~17:00 / 대상 : 젊은이 남, 여
· 연산동 청원소 / 문의 : 010-6448-3191

**27th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알로이시오자선음악회**
· 11.2(토) 19:00 · 알로이시오홀이더
문의 : 250-5387(마리아수녀회)

노들담 예비자교리서 교재 연습
· 10.26(토) 09:00~16:00 · 데라사여고 인성교육실
문의 : 010-2123-6319(노들담교리교재연구소)

강서노인복지관 노인봉사단원 모집
풍선, 인형극, 선배시민 봉사단원 모집
문의 : 972-4851(강서노인복지관)

한티순교성지 피정
· 10.26(토) 16:00~27(일) 13:00
주제 : 그대 어디로 가는가 (순례음악)
강사 : 여운동 신부, 홍승란
문의 : (054)975-5151

신·구약성경 완독피정
· 10.26(토)~11.3(일) / 48만원
· 11.15(금)~23(토) / 48만원
문의 : 010-3340-0201(형성 도미니코피정의집)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피정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2일 피정 : 10.26~27, 11.16~17
3박4일 피정 : 11.21~24, 12.19~22
8박9일 피정 : 11.4~12, 12.26~1.3
40일 피정 : 12.13~1.21, 4.14~5.22
문의 : 010-4906-5722, (031)953-6932

렉시오 디바나 피정
· 매주 토 14:00~일 14:00
· 경남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내용 : 유덕헌 아빠스와 최재용 원장이 함께 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문의 : 010-2816-1986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10.19(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한국순교복자발마수녀회	수시로 가능	부산 오륜대 본원	010-9199-4995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도회	수시모집	경남 고성 수도원	010-8798-2986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율례길·오름 트레킹
(모든 일정은 양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 가능)
· 10.27~29, 11.3~6(추자도), 11.11~13,
11.24~27(추자도), 12.2~4, 12.6~8
연말연시 : 12.29~1.1(일물, 일출, 한라산눈꽃산행)
문의 :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지순례 모집
· 11.5~7, 12.17~19, 1.3~5
· 제주 성지 7곳(성지 해설)
(해외순례 : 3.2(월)~13(금) 그리스, 터키)
문의 : (064)805-9689(가톨릭사회경제연합)

농은수련원 피정 및 교육
자연 안에서 힐링(산비길 걷기, 예술치료, 휴식)
대상 : 성경대학, 부부, 가족, 제 단체
문의 : (054)652-0591, www.nongeon.kr

2020 겨울방학 필리핀 영어캠프 모집
· 1.4(토)~2.16(일) 6주
· 필리핀 팍상한 마리아의 아들 수도원
대상 : 초4~중2(50명 모집) / 비용 : 420만원
문의 : (031)207-4982 010-4442-4982
주최 :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블로그 : blog.naver.com/cficengcamp

꽃동네 청년선교학교
· 1.6(월)~22(수) · 필리핀 마닐라, 티클로반
모집마감 : 10.27(일) / 문의 : 010-4220-2833
주최 : 예수의꽃동네형제회사매회

작은형제회 61차 이태리 순례
· 5.3(일)~15(금) / 450만원
문의 : 010-9454-5648, www.terrasanta.kr

예수고난회 재속3회원(동반자회) 모집
대상 : 55세 이하 세례 받은지 3년 이상 교우
신청 : 12.31(화)까지 / 문의 : 010-9316-4080

미국가톨릭사립학교 정규입학
대상 : 초5~고2 / 기간 :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문의 : (02)2258-8983(월~금), 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의례지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행복나눔 심리상담실 (명칭 및 이전) 안내
상담 : 월~금 10:00~16:30(명륜역 2번 출구)
내방상담 : 신자, 타종교인 및 지역민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 10:00~16:00
영적인 문제 및 고해상담 : 조옥진 신부
대표 : 김정애 및 전문상담사
행복나눔의 전화 : 463-7866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장정애 한복디자이너 동국주단 최상희(안나) 장정애(요안나) (본점) 부산진시장(지점) 자성대서로 입구 997-0707, 010-9243-5776</p> <p>자식의 입장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산본원 모라본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최 경 순 (엘리사벳) 입원상담 010-3848-2748</p>	<p>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성모치과 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p> <p>동래 참사랑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아베스)</p>	<p>동래교차로(수안동) 독일보청기 청력검사, 난청유형별맞춤처방, 정부지원 보조금상담, 교우특별할인, 즉석 A/S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동래구 중원대로 229, 수안역 7번출구 앞 2층</p> <p>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11/22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69만원 11/28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원 12/3 동부유럽 12일 350만원 1577-5006</p>	<p>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 김용기내과의원 [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 장. 김 용 기(T. 아퀴나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p> <p>박 숙 현 정신건강의학과과의원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횡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 숙 현 (에스텔)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p>	<p>50년 전통 명신당 목주반지, 귀금속 예술품도 전문 반광옥(바오로) 김영란(제노베파) 010-3599-7885 646-7885 범일역 1번출구 진사장 방면 약 50미터 거리</p> <p>내일N성형외과 최수중(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눈, 코, 윤곽, 가슴, 지방성형, 보톡스, 필러, 레이저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부대로97(범일역 2출구) / 서구청 옆</p>
---	---	---	---	---